

中 헬스케어 새 먹거리로… K-제약, 뷰티 등 영역 확장

휴온스 ‘휴톡스’ 중국 품목허가
국내업계, 재생바이오·화장품 등
경계 허물고 사업 영역 다양화

중국 헬스케어 시장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신을 앞세운 각축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재생 바이오와 스킨부스터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되는 모습이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바이오파마가 ‘K보톡스’ 후발 주자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를 통해 중국 국가 의약품관리국(NMPA)에서 ‘휴톡스(국내 제품명: 리즈톡스)’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휴톡스는 A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처방한 미용 및 치료용 의약품이다.

휴톡스 100단위는 중국 임상 3상에서 중증도 및 중증 기간 개선 목적으로 유효성, 안전성 등을 입증했고, 중국 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는 임상, 약학, 통계, 규제 적합성 등 4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이 미래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인공지능 챗피터 생성 이미지.

기술심사 검토를 마쳤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향후 중국 전역에서 휴톡스 상용화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지역(마카오 및 홍콩 포함) 내 휴톡스 단독 수입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아이메이커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협력 가능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시장 안착이 전망된다.

국내 기업으로는 휴젤이 가장 먼저 중국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 진출해 있다. 2020년 10월 중국 NMPA에서 ‘레티보’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021년 2월에는 50단위를 추가 승인받는 등 휴젤은 제품군을 강화해 글로벌 마일스톤을 확보해 왔다.

휴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의료성형기관 중 약 85%에 해당하는 6800여 곳에 레티보가 공급되고 있고 레티보 시

장점유율은 15% 수준이다. 또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휴젤의 보툴리눔독신 및 더마필러 전체 매출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매출의 비중은 47%에 달한다.

보툴리눔 독신뿐 아니라 재생 바이오에 중점을 둔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의료기기에서 화장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화장품 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글로벌 뷰티편집숍 세포라 차이나에서 ‘리쥬란코스메틱’을 선보인다. 1월 온라인몰에서 선공개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중국 전역 약 200개 오프라인 매장에 동시 입점한다. 세포라 차이나가 신설한 ‘더 넥스트 빅 씽’ 코너에서 소개되며 파마리서치가 재생 의학을 기반으로 특허받은 PDRN 기술을 집약한 스킨부스터 제품군을 다수 내놓는다.

파마리서치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 항노화 등에 쓰이는 신소재인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와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해 온 가운데, 이미 ‘리쥬란’을 앞세워 ‘K-P

DRN’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리쥬란은 안면부 주름 개선 목적의 의료기기로, 2014년 국내 출시 후 2020년 중국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리쥬란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5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와 함께 파마리서치의 분기별 수출 실적도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519억원, 505억원의 수출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은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출국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헬스케어와 뷰티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며 한때 단순 소비재 시장보다는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중국은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에스테틱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자체 기술력과 신뢰도를 앞세운 세분화된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주’ 도입

바이오·제약 기업 ‘사노피’와 협력
생후 6주~24개월 미만 영아 사용 가능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사노피 한국법인과 협력해 4가 수막구균 접합백신 ‘멘쿼드피주’를 국내에 신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유아 및 소아 대상 국내 유통과 공급을 맡는다.

사노피가 개발한 멘쿼드피주는 생후 6주 이상부터 55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수막구균의 주요 혈청형인 A·C·W·Y로 인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한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된 A·C·W·Y 수막구균 백신 가운데 혈청형 A를 포함하면서 생후 6주~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멘쿼드피가 유일하다.

멘쿼드피는 완전 액상형 제형으로 별도 희석 과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접종 준비 과정을 간소화해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



4가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주 제품 이미지.

성을 줄인다.

접종 방식은 1회 접종량 0.5mL의 근육 주사다. 생후 6주~6개월 미만 영아는 총 4회, 생후 6개월~24개월 미만 영아는 2회, 2세~55세는 1회 접종을 실시한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콧물, 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 없는 보균자를 통해서도 감염 가능하다. 체내 비인두에 잠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혈류나 중추신경계로 침투해 수막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선

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식 권고에 따라 영유아, 소아,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면역저하자, 실험실 종사자, 신입 훈련병, 대학 기숙사 거주자, 유행지역 여행·체류자, 유행 발생 시 접촉자 등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영유아와 소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예방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멘쿼드피 도입을 통해 국내 영유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예방 선택지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감염병 예방 환경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리라푸그라티닙’, 1차 치료제로 개발확장

HLB그룹 임상 2상 결과 발표

HLB그룹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6)’에서 담관암 치료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을 주도한 프랑스 구스타브 루시 암센터의 앙투안 홀르백 교수는 “리라푸그라티닙은 고선택적 FGFR2 억제제로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FGFR2 융합 담관암 환자에게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임상 결과, 리라푸그라티닙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46.5%, 질병조절률(DCR)은 96.5%,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11.8개월이다. 범-FGFR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에서는 ORR 23%, DCR 77% 등을 기록하며 항종양 활성을 보였다.

담관암 1차 치료제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전 화학요법 및 FGFR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군(11명)에서 ORR 63%, mDOR 9.2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11개월 등이 나타났다.

안전성 데이터도 확보했다. 흔히 관찰된 이상반응인 구내염, 수종증후군 등은 FGFR2 억제 기전과 관련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FGF R 억제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알려진 고인산혈증과 설사 발생률은 각각 20.7%, 21.6%로, 기존 약물인 페마티닙(고인산혈증 60%, 설사 47%)과 푸티바티닙(고인산혈증 85%, 설사 39%) 대비 낮은 수치다.

HLB그룹은 우선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담관암 2차 치료제로 리라푸그라티닙 신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팜퍼스, 2026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 출시

한국P&G 흡수력·착용감 강화

한국P&G는 기저귀 브랜드 팜퍼스에서 고급 아기 기저귀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사진)’를 2026년형으로 재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팜퍼스는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착용하는 상황을 반영해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 소재, 흡수력, 착용감 등을 강화해 왔다.

팜퍼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2026년형 신제품은 100% 오가닉 순면을 활용해 과한 습기, 마찰력 등 피부 자극 요인으로부터 아기 피부를 보호해



준다. 또 팜퍼스만의 얇지만 우수한 흡수력이 기저귀 속 축축함으로 인한 피부 자극 걱정을 최소화한다.

안감에는 알로에와 시어버터를 각각 55ppm 함유한 로션이 더해져 아기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준다.

/이청하 기자

“3m 대형 얼음 조각 보러 오세요”

신세계사이먼 파주 아울렛

신세계사이먼이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센트럴 스퀘어에 겨울 시즌 특별 콘텐츠로 대형 ‘얼음 조각 전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에는 부엉이, 토끼, 펭귄, 여우 등 친근한 동물들을 형

상화한 얼음 조각 4점이 설치됐다. 최대 3m 높이에 달하는 투명하고 웅장한 얼음 조각들은 햇빛과 조명에 반사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이번 겨울 ‘매지컬 프로즌 빌리지(Magical Frozen Village)’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야외 스케이트장인 ‘아이스 가든’과 정해진 시간마다 눈이 내리는 ‘시계탑’에 이어, 이번 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전시된 얼음조각 작품

/신세계사이먼

음 조각 전시까지 더해지며 고객들에게 동화 속 겨울 왕국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